

책 임 자	금융위원회 전자금융과장 주 홍 민(02-2100-2970)	담 당 자	유 원 규 사무관 (02-2100-2974)
	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이용제도과장 전 영 수(02-2110-1930)		이 현 우 사무관 (02-2110-1932)
	외교부 여권과장 윤 희 찬(02-2002-0100)		유 아 람 행정관 (02-2002-0133)
	법무부 형사기획과장 진 재 선(02-2110-3269)		조 수 영 검사 (02-2110-3718)
	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윤리팀장 전 혜 선 (02-2110-1560)		권 만 섭 사무관 (02-2110-1566)
	경찰청 수사과장 최 승 열 (02-3150-2168)		박 찬 우 경정 (02-3150-1778)
	금융감독원 불법금융대응단장 김 수 현(02-3145-8150)		금융감독원 금융사기대응팀장 이 명 규(02-3145-8521)

제 목 : 『전기통신금융사기(보이스피싱) 방지 종합대책』 발표
- 친구, 가족 등 지인 사칭 메신저피싱 주의!
금전요구 메시지 받으면 직접 전화해 확인! -

- 12.18(화), 정부는 전기통신금융사기(통칭 ‘보이스피싱’) 대응을 위한
 「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대책 협의회」를 개최(주관 : 금융위) 하였음
- 최근 보이스피싱 현황에 대해 점검하고, 국민들의 재산 보호를
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마련한 보이스피싱 종합대책*을 발표

* 신·변종 금융사기 등 보이스피싱 수단별 대응, 대포통장 관련 사전예방·사후제재 강화, 해외를 거점으로 하는 보이스피싱 조직 등에 대한 엄정 대응 등

<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대책 협의회 개요>

- 일 시 : 12.18(화) 10시30분
- 장 소 : 정부서울청사 16층 대회의실
- 참석자 : 금융위, 과기정통부, 외교부, 법무부, 방통위, 경찰청, 금감원
- 주요 내용 : 보이스피싱 방지 종합대책 관계기관 협의 및 발표

※ 보도자료와 관련한 상세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
- 첨부 1. ‘18년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 종합대책 상세 자료 (관계부처)
 첨부 2. 지인을 사칭한 메신저피싱 주의 당부 (방통위·금융위·금감원 보도자료)